

# 《재일조선인들의 민족무용을 생각한다.》 (1)

민족문화의 하나인 민족무용은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지고있는 예술형태의 하나》로서 해당 민족의 민족적생활, 풍습과 사상감정을 그 민족의 고유한 룰동으로 표현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민족이 일본에 건너와 살게 되면서 이제는 3세, 4세가 주류를 이루고있으며 5세들도 태어나고있다.

해방후 70여년 조국과 고향을 모르고 이국땅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들이 기본으로 되는 재일조선인들속에서도 민족문화의 하나인 민족무용은 민족의 흥취와 멋이 스민 민족적색채가 짙은 예술로서 그가 가지는 대중침투성과 미학적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재일조선동포사회에 확고히 뿌리박고있다.

재일조선동포사회에서 조선무용은 대중화, 활성화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과 녀이 깃든 우리 문화를 함유하며 이역땅에서도 자신의 민족적아이덴티티를 확고히 고수하고 이어나가려는 강한 정신과 끈질긴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본다.

재일조선인들속에서 민족무용-조선무용이 오늘까지 어떻게 보급되고 활성화되어왔는가를 살펴보자고 한다.

## ◎재일조선인들속에서 민족무용의 보급과 활동

### 식민지시기와 해방직후 민족무용의 보급과 활동

#### (1) 식민지시기

일제의 조선강점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식민지로 되었으며 식민지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유구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과 글,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노래와 춤도 무참히 짓밟혔다. 그 암담하던 일제식민지시기에 조선무용의 이름을 세계에 떨친 사람이 있었다.

조선무용가-최승희였다.

최승희의 명성과 무용활동은 망국노의 쓰라린 처지에 놓이고있었던 우리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민족의 긍지와 희망을 안겨준 민족적상징의 하나였다고 한다.

당시 최승희가 다니는 무용연구소나 지방공연에는 일본에 온 조선류학생들이 자주 찾아 왔다. 또한 조선동포들은 최승희가 추는 조선풍의 무용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였으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였다고 한다.



조선무용가 최승희

[자료 1]

재일조선무용가들속에서 제 1세대로 되는 임추자, 리미남씨들은 재일동포 2세로서 최승희의 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한번 본 최승희의 무대에... 온몸의 혈관에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 그 뜨거운 민족의 피가 강한 원동력이 되어 식민지하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단념하지 말라, 살아야해!>하고 부추겨주는것만 같았다.>고 한 백부의 말이나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무용가 최승희에 대한 동경심 《최승희처럼 되고싶다》는것이 무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임추자씨, 2011.8, 리미남씨, 2012.10 취재)

#### (2) 해방직후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된 조련은 정기적으로 개최된 문화부장회의와 전체대회에서 과거의 식민지문화정책, 동화정책을 극복하고

민주민족문화의 수립과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문화활동을 벌릴것을 제기하였으며 동포들에 대한 문맹퇴치, 민족계몽활동과 민족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자료 2]

조련주최로 조선독립대연주회(1945.12.21~23)나 동포위안회(1946.2.3) (《민중신문》1946.2.5호)등을 조직진행하였으며 1946년 2월부터 8월까지 지방순회위안대를 모고 공연도 진행하였다. 당시 아동학예대회, 조국해방 1주년기념 연회공연에는 합창, 무용, 아동극, 촌극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다.

해방후 일본에 남은 1세문화인들에 의하여 결성된 일본조선예술협회(략칭 예협, 1946.3.25), 조련측문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1947년 2월 20일 조련과 민단소속의 문화단체련합전선인 재일본조선문화단체련합회(략칭 문단련, 35문화단체대표 66명 참가)가 결성되었다. 그후 민청(청년단체)과 녀성단체들은 협공하면서 위안대나 문화공작대(문공대-1947년경부터)들을 무어 연극, 합창, 무용 등을 위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조련은 《조련문화상》(1948.7)을 설정하고 문학과 함께 미술, 무용, 연예부문 지도자양성을 위한 《조련중앙고등학교》12기(1948.12)를 예술학원으로 하여 민청문공대지도자양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문화선전대, 문화공작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의 계몽활동, 선전활동을 벌려 민족적자부심과 긍지, 재일조선인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족문화활동을 발전시키려(『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 吳圭祥)고 하였으나 미일당국에 의하여 1949년 9월 8일에 강제해산되고 말았다.

조국이 해방된 직후 주로 우리 동포들속에서 민족적인 노래와 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하는 공화국에서 불리워지고있었던 노래들을 가르친것은 1세예술가인 장비(張飛), 서묵(徐默)들 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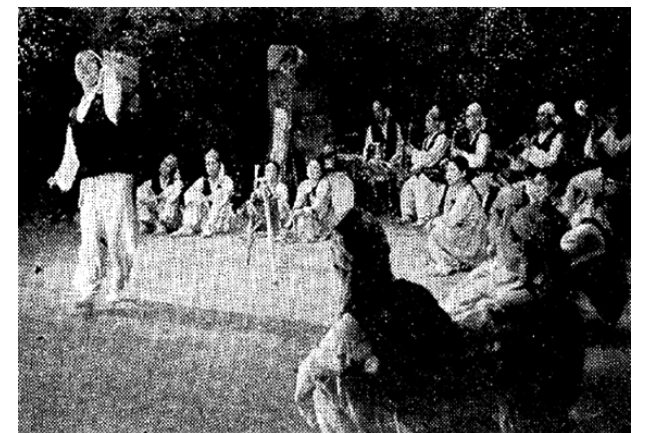
장비는 북은 흑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기까지 리어커(인력거)에다 풍금을 싣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동포들의 부락을 찾아다니면서 7년이 넘도록

예능공작(우리 춤과 노래)을 하여 청년들과 일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녀성들과 심지어는 할머니들에게까지 《새아리랑》, 《릴리아》, 《뽕따러가세》와 같은 민요와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등을 가르치며 계몽활동을 계속하였다.

조련이 강제해산된 후에도 재일조선동포들은 조국의 융성발전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그려보며 민족성을 되찾고 살려나가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이 시기 주목되는것은 1946년 2월부터 시작된 지방순회위안대가 발전한 문화공작대(문공대), 문화선전대(문선대)활동이다. 당시 문공대, 문선대는 무수히 조직되었으며 8.15해방과 9.9 공화국창건을 기념하는 문화제, 5.1절메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여러 곳에서 문공대(소년단문공대, 조선중학교문공대, 민애청문공대, 녀동문공대)들이 민족교육과 동포들을 묶어세우는 사업, 생활을 지키기 위한 투쟁, 조일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제나 순회공연활동을 하였다.

중앙문선대(1954년 2월)의 공연연목에는 《어랑타령》, 《양산도》, 《밀양아리랑》등의 민요와《농악》, 《승무》, 무용극《흥부와 놀부》, 무용단편《빛나는 조선》등의 민족무용이 포함되었으며 민족고유의 복장에다 어깨춤을 비롯한 민족적인 춤들이 추어져 일본인민들은 처음보는 조선민족예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 동포들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흥이 나서 춤판을 벌리였다고 한다.



(사진-중앙문선대의 연습풍경)

## 《재일조선인들의 민족무용을 생각한다.》 (1)

노래와 춤을 위주로 하는 제1문선대는 1955년 6월에 《재일조선중앙예술단》으로, 연극을 주로하는 제2문선대는 1950년 1월 《모란봉극장》으로 되다가 1965년 1월에는 《재일조선연극단》으로 된다.

해방직후로부터 1960년대 초까지 재일조선인들의 무용활동에서 중심이 되어 보급과 공연활동을 진행한것은 김장안(金長安), 조봉희(趙鳳喜), 부수현(夫守絃), 정민(鄭珉)을 비롯한 1세대무용가들이었다.



(사진-왼쪽은 김장안씨, 오른쪽은 조봉희씨)

또한 해방후 재일조선인들의 문예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농악대》활동이었다.

이 시기 농악대는 일반 동포대중들로 무어진 농악대였으며 학교개교 및 건설운동과 생활권을 비롯한 민족권리를 지키고 획득하기 위한 투쟁, 조국통일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요청 등 여러 사회적운동과 모임들에서 활동함으로써



(사진-농악대 모습)

재일조선동포들의 마음속에 조국애와 민족심을 안겨주고 동포들을 단합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농악대는 음력설을 맞이할 때면 민족의상과 상모, 고깔모자에다 농기를 들고 가두를 누비였으며 북은 흑가이도 아바시리(網走)로부터 남은 규슈 오오이따(大分)에 이르기까지 동포부락과 가정, 심지어는 민단동포와 일본사람들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빠라도 살포하고 기금도 모았다.

한편 각지에서 문화소조(씨클)들이 조직되어 조선의 춤과 노래를 가지고 문화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민족교육을 통하여 배운 어린 학생들이 여러 문화제, 학예회에 출연하여 노래와 춤으로써 관중을 감동시키곤 하였다.

이 모든것은 지난날 자기의 노래와 춤을 마음대로 못했던 우리 재일조선동포들이 해방직후부터 민족적인 춤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되찾고 살려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벌린 활동들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술학박사,  
부교수, 공훈예술가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학부장  
박 정 순



(사진-우리는 무용씨를지도원 강흥민, 이만근 예술공연단)의 모습